

“행복의 뿌리는 정직한 마음”

달라이 라마 인도 보드가야 신년 법회

2010년 달라이 라마의 신년 법회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성지 인도 보드가야에서 거행됐다. 1월 5~9일 5일간 개최된 이번 법회는 전 세계 불자 4만여명이 운집, 불법의 대강연을 펼쳤다.

이번 법회에서 달라이 라마는 '21세기 종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종교인의 바른 자세'를 주제로 "불교도는 불법승 삼보에 진심으로 귀의하고 일상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설하고 "자신이 바로 자신의 스승임을 자각하라"고 강조했다.

법회는 용수보살의 <출세간찬탄문>, 인도의 대학자 아티사 존자의 <보리도등론>, 룬첸 린포체의 <마음 그 자체를 쉬어라>, 쯙카파 대사의 <도차제설의>를 주제로 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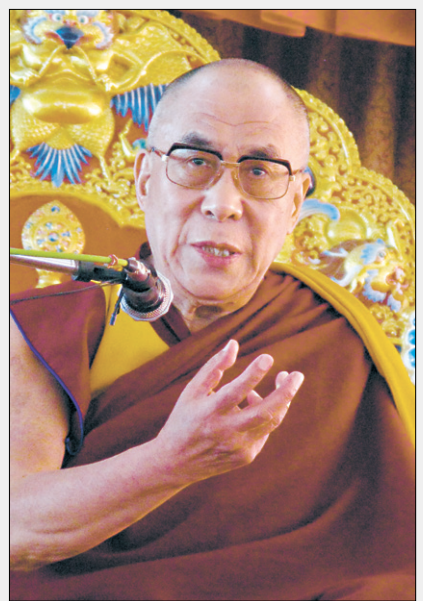
#진실한 마음·행동에 행복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자비와 자애심이아말로 마음 치유의 특정한 뿌리입니다. 기만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 성실하게 진심으로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행위와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야 할 것이며 타인에게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의 극단은 죽음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담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는 항상 평온을 선사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 때 마음이 맑아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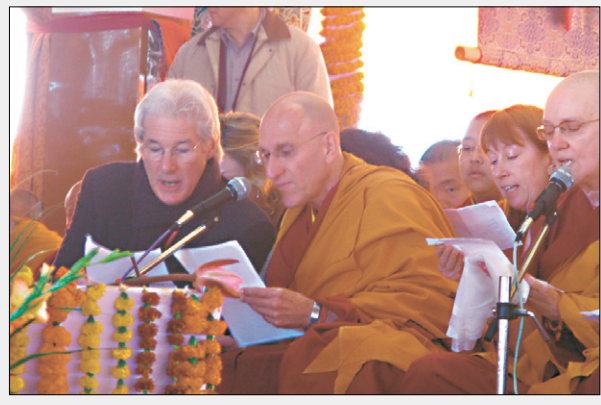
<임보리행론>에서는 "어디를 가건 중생의 무리에서 항상 자신을 낮춰 보고 중생을 받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富)를 얻기 원한다면 주변인에게 자애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는 절대 돈과 물질로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시작이 있는가' '나의 끝이 있는가' 부처님은 오온(五蘊)을 다스리는, 항상 주재하는 '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에 의지해 있으며 오온과 따로 분리된 '나' 또한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을 명상하십시오. 빈곤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명상하기에 쉽지 않은 수행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연기(緣起)의 실상을 다룬 불교
반야 공성(空性)의 기동인 사성제(四聖諦)는 명료하게 불교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는 수행의 근간이 되고, 도제(滅諦)와 별제(道諦)는 닦아서 성취해야 할 바입니다.



보드가야 칼라차크라 광장에서 신년법문을 설하는 달라이 라마.



미국불자를 대표한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좌측 첫 번째)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불행은 무지(無知)에 의해서입니다. 무지한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상(實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신할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생을 널리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향해 귀의하십시오.

인과의 연기(緣起)를 깊이 들여다 보면 <중관>에서 말하듯 서로의 부분들이 서로 의지해 연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원인과 결과 그 자체는 이름 붙여져 존재하는 것이지, 자성(自性)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수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알고 난 후에 마음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명(無明)을 없애고 전도된 견해를 끊어서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기에 최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불법의 가르침
용수 보살의 <출세간찬탄문>의 가르침처럼 적멸의 지혜로서 연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같습니다. 눈은 결코 생겨남을 안벽하게 인

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으로 느끼며 이것에 느끼는 것'. 그 대상과 행위자 사이에서 무엇을 느낄 때 느끼지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지,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이름과 뜻은 둘이 아닙니다. 자성으로 존재하는 행위와 행위자는 없지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행위자와 행위, 그리고 행위 대상은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깊이 사유하며 수행하십시오. 들음으로써 듣고 이해해 꾸준히 생각하게 되면 사유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청정한 공성이 바로 중도(中道)입니다. 무명의 혼잡조차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연기로서 존재하는 진여(眞如)를 알아야 합니다. 공을 깨치기 위해 가장 미세한 의식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물은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고 함은 비할 바 없는 사자후입니다.

<도차제설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유로운 인간의 몸은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뛰어난을 알아서 석가모니부처님의 행적을 따라 그와 같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정진의 옷을 입고 지혜라는 정광명(淨光名)의 배에 오르십시오.

인도 다람실라 =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골목 없는 새로운 삶 살기를...

청원 석문사, 소년원 방문 위문공연 펼쳐

한국호국불교효예중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1월 11일 청주 소년원을 찾아 '새 희망 새 출발 새해맞이' 초창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소년원에서 어머니 스님으로 통하는 혜전 스님과 자비실천운동본부 단장 해광 스님, 지도위원장 조권섭 대양산업 사장, 김연우 감사, 청주 자비실천어머니회 봉사단 등이 참석했다.

위문공연은 웃음치료사 송미자 선생과 김현식 불자가구의 노래에 이은 학생들의 장기와 노래로 진행됐다.

혜전 스님은 "성의껏 간식거리와 선물을 준비 했다"며 "오늘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므로 노래와 장기자랑을 하며 마음껏 즐기고 상품도 받아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진남 교무과장은 환영사에서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프로그램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고 희망차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즐거운 생활을 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권섭 지도위원도 "부디 여기서 나가면 골목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았



청원 석문사의 청주소년원 위문공연 모습.

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웃음치료사 송미자 선생과 불자가구 김현식 씨가 노래를 선사했으며 이어 학생들의 장기와 노래로 한껏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위문공연에 이어 석문사 부설 미혼모 지원센터인 자비원 조권섭 운영회장은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교양중 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동대문구 분원 개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제기동에 동대문구 분원을 개원한다.

동대문구 분원은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에 위치한다. 420여 평 규모에 법당과 중무소, 서점, 공양간 등을 갖춘 분원은 경산, 철곡, 구미, 포항, 중국 청도에 이은 것으로 회주 우학 스님의 1000 분원 건립 불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학 스님은 1000 분원 건립 불사를 통해 재가 불자들이 손쉽게 사찰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 기도·봉사·수행·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는 신속에 사람이 위치해 재가불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신중 사찰에서 벗어나 도심 속 중생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식에 앞선 22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30분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공식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마' 정교법회를 연다.

동대문구 분원은 불교기초교리반을 모집하며 26일(화)에는 오전반을, 28일(목)에는 저녁반을 개강한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뉴욕 도량 확장 및 광주 등에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굳건한 정신’의 표상 교수되다

산악인 박영석 대장 東大 석좌교수 임용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3월 1일자로 산악인 박영석 대장을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박영석 대장은 1985년부터 산악인으로 활동해 온 동국인으로, 동국대 체육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각각 1991년과 2003년 졸업했다. 박영석 대장은 2005년 인류 최초 의산악 그랜드슬램 산악인이 세계 8000m급 14좌(座)와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을 모두 등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달성했다. 또한 2006년에는 에베레스트 횡단등반, 2009년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



박영석 대장.

트를 개척했으며, 2003년에는 체육훈장 청룡상을 수훈하기도 했다.

동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박영석 씨는 끝없는 도전 정신을 통해 후배들에게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의 표상이 되어 왔기에,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석좌교수로 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향일암 화재 미궁속으로...

전남 여수경찰서, 1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구랍 20일 발생한 여수 향일암 화재 원인이 화재 한 달 여가 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월 1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로부터 '향일암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처음 불이 번진 대웅전 지붕과 벽체가 대부분 소실돼 불교됐

고 대응전 내부도 심하게 연소돼 발화 지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재원인도 인적화원, 불꽃 등에 의한 발화로 추정될 뿐 연소잔류물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경찰에 알렸다.

여수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분석·검토해 화재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삼라만상이 모두 베푸는 것”

사암련·백제불교회관 신년하례법회



1월 8일 거행된 대전불교신년하례법회서 참가자들이 대전불교 발전을 기원하는 덕 절단 후 건배하는 모습.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안)와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1월 8일 대전 오페라컨벤션센터에서 대전불교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을 비롯한 대전지역 100여 스님과 주호영 특임장관과 대전광역시 박성호 시장 등 500여 관계 기관장이 참석했다.

혜종 스님은 법문에서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내 존재의 이유와 진리가 베풀에 있다. 대전·충남 시민이 모두 베풀

는 베풀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길에 행복이 온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지난해 불교발전 공이 큰 불자들에게 대한 사상이 있었다. 충남도청 불교회 조항민 부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문산경찰서 불교회 고대운 부자와 사창불자회 송민섭 총무가 포교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 대전사암연합회 신도회 정광태 회장이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 백제불교회관장 표창패는 대덕구청 불자회 최희화 부자와 대전지방경찰청 불교회 최양선 총무, 대전 운불련 오용환 부자 등이 수여했다. 대전·충남 시민이 모두 베풀

혜철 충청지사장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14-1 일본산 후리지아(향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소매자 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2-1 아광용 핑크 70 x 35cm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 x 35cm / 2-3 복황초-아광용 70 x 35cm / 2-4 불황색 전사지 70 x 35cm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육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ℓ